

정개특위 새 이슈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엔 지역구 46석 줄여

野 “긍정 검토” 與 “내놓고 반대하긴 어렵지만...”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야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증원 문제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정개특위를 시작하자마자 의원 정수를 증원하자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의원 정수 증원은 국민 설득이 관건”이라며 “과연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비판적 전망을 내놨다.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고착화된 지역주의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나눌 수밖에 없어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게 되면 지역구 의석을 무려 46개나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대의정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 대비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지역구수 감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

즉 지역구 숫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게 ‘의원정수 증원론’의 요지다.

정개특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의원 정수를 늘려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 의원 특권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는 데에는 정치적 셈법도 녹아 있다는 분석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 기준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

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7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명분론이 강해 새누리당으로선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때문에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증원 반대를 통해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차단막을 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의원 정수 증원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개최되는 정개특위에서는 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연금특위’ ‘실무기구’ 동시 가동키로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간은 5월2일로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

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4·29 광주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

정승,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본격 선거 준비

정승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이날 오전 금호동 마재우체국 사거리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개소식에서 정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보선 필요성을 다짐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발전을 위한 여권의 지원과 획기적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정승 뿐”이라며 “광주는 이제 정승이다”를 슬로건으로 강조했다.

정 후보는 특히 “이번 선거는 광주 발



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일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며 “당선되면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광주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필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그는 또한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센터 광주 유치 ▲서창·마곡 문화예술 관광단지 조성 ▲광주 제2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주요 실천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영택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는 2일 광주 서을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단 및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3~5세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면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입장을 바꾸면서 올해 광주시 누리과정 예산 총 724억원 중 부족분 332억원을 고스란히 광주시가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무책임하게 무상보육 공약을 파기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보육관련 예산을 지키는 것

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누리예산 반쪽지원 문제 해결과 하루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천정배,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식...필승 퍼포먼스

천정배 무소속 예비후보가 4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풍암동 풍금사거리 베스트한방병원 8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선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들과 서구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각계 각층의 염원을 모아 ‘염원의 나무’를 심고, 희망의 바람을 염원의 열매에 적어 매다는 필승 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3월 9일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 광주를 수소에너지 메카로 만들고,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 설립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과 경로당 파출소 소방서 방문 등 연일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급한 文, 중진들과 ‘원탁회의’...재보선 지원 요청

일부 중진 의원 불참 ‘반쪽’

안철수 관악을 ‘구원투수’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내 중진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2일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대표급 중진 의원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은 불참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표의 초청을 받은 중진 의원은 이해찬·문희상·정세균·김한길·박지원·박영선·안철수 의원 등이다. 하지만, 이 중 김한길·박지원 의원은 불참했다.

김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박 의원은 지방 일정으로 각각 참석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전담대에서 강연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담대에 ‘김대중의 사상과 리더십’이라는 강좌가 처음 개설됐는데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최정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 강의를 진행한다. 전담대회 전부터 요청을 받고 준비해온 일정이라 원탁회의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원탁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당의 단합과 혁신에 필요한 조건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진들은 기본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도움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한길, 박지원 의원이 불참한 ‘반쪽 원탁회의’가 돼서 문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문 대표를 돕고자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다른 비노진영 수장들이 재보선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과는 대비를 이루는 모습으로, 계파 논리에 갇히지 않는 ‘큰 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신림역사거리로 방문, 관악을 보선에 출마한 정태호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로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위기에 빠진

문 대표를 위해 비노계 지도자급 인사 중 가장 먼저 ‘구원투수’를 자처한 셈이다.

정 후보가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점도 안 전 대표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는 인천 서구·강화를 신동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다녀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